입실지도 전통에서 스승 회고

종달 이희익 거사 입적 20주기… 제자 박영재 교수 엮어

최근 간화선의 대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은 선문답과 지도점검의 체계 확립으로 이뤄지고 있다.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나 장애에 부딪쳤을 때 지도점검을 해주는 선지식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간화선을 전통 수행법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원장 스님들은 '문답과 점검'이 간화선 대중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혹자는 오늘날 간화선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문답과 점검'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각 단체들을 찾지만 '문답과 점검'의 부재로 정작 간화선의 참 의미를 알고 이를 다지게 되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는 간화선의 쇠퇴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화선 수행을 4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재가 수행 단체다. 특히 선도회는 '입실(入室) 지도'라는 전통을 이어 눈길을 끈다. 입실지도는 제자가 스승과 일대일로 만나 끊임없이 수행력을 점검받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선도회 법회에서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 혜개 선사의 <무문관>(無門關) 제창을 시작으로 48칙(則)을 화두로 들며 체험한 경계를 박영재 교수에게 점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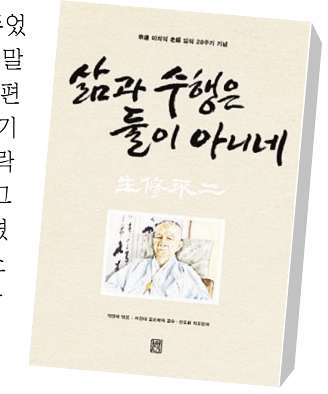
이러한 전통은 1965년 선도회를 조직한 종달 이희익 거사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선도회 1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희익 거사는 현재 재가 수행이 있게 한 기반을 닦은 재가선사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는 1990년 입적한 종달 이희익 거사의 20주기를 기리며 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종달 이희익 거사는 세 스승에게 귀의하기(귀의삼사 歸依三師), 지속적으로 입실점검 받기(입실점검 入室點檢),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 부리기(좌일주칠 坐一走七)를 핵심 수행가풍으로 세웠다. 여기서 세 스승은 부처님과 공안집 무문혜개 선사, 그리고 종달 이희익 거사다.

책은 이러한 핵심 수행 가풍을 총 3부로 구성해 전한다. 1부에는 종달 이희익 거사의 일대기와 선도회의 성립과정, 선도회 간화선의 요체, 10년간 선도회 활동과 언론자료 등을 실었다. 2부에는 선도회 문하생들의 수행 수기, 3부는 종달 이희익 노사가 저술한 한국선에 관한 16권의 책에 대한 소개와 그 요지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박영재 교수는 종달 이희익 거사의 치열하고 섬세한 수행지도 열정을 '화장실 입실점검' 일화로 소개한다. 1983년 서울 화신백화점 근처 시민선방을 맡게 된 종달 이희익 거사가 입실점검 할 공간이 따로 없자,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사람들을 공부점검한 일화다. 이 밖에 종달 이희익 거사는 입적하기 전 급격히 몸이 쇠약해 가는 가운데서도 누워서 까지 입실점검에 온 힘을 쏟았다.

"스승님이 몸을 가누시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해 가셨다. 병중이신데도 토요일 입실 받으시는 것만은 거르지 않으셨다. 불편한 몸을 겨우 가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느라 입실을 받으시는 모습은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스승님은 말씀하시기가 불편해지자 벽에 기대앉아 손가락 끝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셨다. 우리는 스승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까지도 말씀없는 법문으로 새기면서 스승님의 임종을 맞았다."



거사의 열정은 문하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문하생인 조선대 김인경 교수는 30초에서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입실점검을 받기 위해 여러 해 매주 비행기를 타고 상경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치열한 구도열은 문하생들이 오늘날 제주도에서도 입실하러 오는 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도회는 서울 목동, 정릉, 서강대, 인천, 대전, 광주 등 11개 지부 모임에서 200여 회원들이 정진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종달 이희익 거사가 남긴 모습은 재가불자들의 수행선풍 진작에 대한 거사의 큰 원력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 | 박영재 엮음 | 본북 펴냄 | 1만 6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종달 이희익 거사는?

190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종달 이희익 거사는 동경 일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종달 이희익 거사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귀국 후 잡지 <조선불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종달 이희익 거사는 조선불교재단의 상무이사였던 삼소(三笑) 나까무라 선생의 권유로 일본 임제종 남선승당(南禪僧堂) 소속의 화산(華山) 노사 문하에 입문하게 된다. 종달(宗達)이란 법명을 받은 거사는 화산 노사 문하에서 8년 동안 조석(朝夕)으로 입실하며 참선 수행했다. 이후 남선승당에서 일본 임제종 최대파인 묘심사파(妙心寺派)의 '한국개교사(韓國開敎師)'는 사령장을 받았지만 9년간 수행을 계속한다.

한국 불교계가 일본 임제종 선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사는 재가자로 문서포교에 뛰어들었다. 거사는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창간, 선전문지 <법시> <선문화> 등 발간을 통해 불교언론 저변확대에 나섰다.

불교잡지를 발행하며 재가자들을 직접 지도하던 거사는 어느 날 이창훈이란 청년이 좌선을 지도해 달라고 찾아오며 원력을 세운다. 1963년 조계종 종정 효봉 스님에게 '조계종 포교사'로 임명받은 거사는 조계사 법당 등에서 재가자 참선지도를 시작했다. 지도 받는 이들이 늘자 거사는 1965년 선도회를 조직해 재가선풍 확산에 앞장섰다.

악연으로 얽힌 실 풀어내니…

필립 그랭베르 서스펜스 기법으로 풀어낸 인연의 고리

'악연', 사람들에게 인연이 존재하는 한 악연도 역시 존재하리라. 누구나 선연과 악연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 아주 기분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씁쓸함과 동시에 상처만을 안겨주는 인연 역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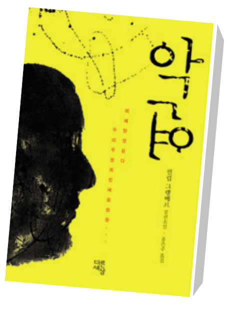
저자 필립 그랭베르는 정신분석가이자 소설가로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해 온 그만의 경험을 불교적 색채로 <악연>에 녹여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책 속 두 남자 주인공의 악연은 정해진 일련의 파국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이 과연 악연인지 선연인지 분간하기 조차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책은 '루'라는 남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줄곧 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는 사람은 그의 샴쌍둥이와도 같은 친구 '만도'다. 두 사람은 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이다. 그것을 우정이라 하지만, 만도의 우정이 루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루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만도의 우정 앞에 몇 번의 배신과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결국엔 만도의 절교 선언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만도의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만도가 정신착란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만도의 그런 정신착란이 자신으로 인해 깊게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루는 그러한 사실에 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배신하지 않고 구해내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결국 루가 택한 방법은 다시금 배신이라는 결말이었다. 이들의 천생연분과도 같았던 인연은 악연으로 끝맺는 듯하다.

하지만 이 책은 2005년 <비밀>로 프랑스 위조상 등을 수상하는 등 프랑스 평단의 호평을 받은 저자 특유의 서스펜스 기법이 녹아 극적인 반전으로 치닫는다.

인연, 인(因)과 연(緣)으로 불교에서는 인은 결과를 산출하는 주된 내재 원인, 연은 이를 발현시키는 간접적 계기라고 말한다. 루는 만도의 자살 이후 일기장을 보며 모든 결과가 자신과 환경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연 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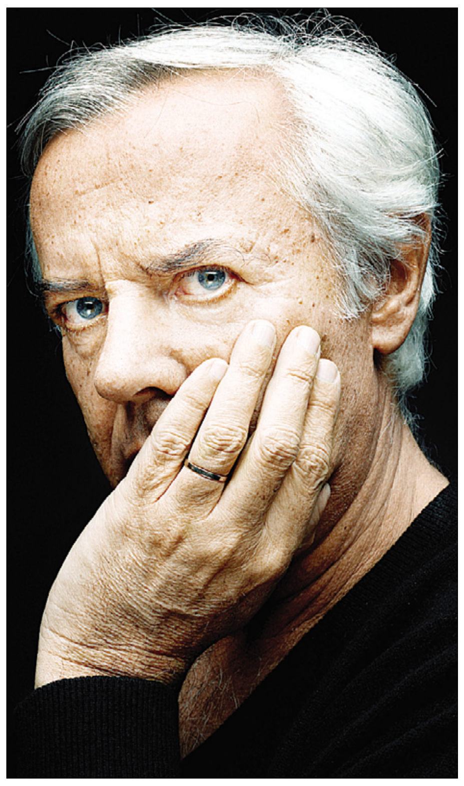
만도는 자살 이전 루에게 일기장을 통해 "내가 보는 걸 너도 보게 될거야, 보면 알거야, 네가 썼어도 아마 똑같았으리란 걸. 이 일기는 우리야"는 말을 남긴다.

"나는 마침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뒀던 고무줄로 묶인 공책 꾸러미를 펼쳐 보기로 한다. 그 기록들은 나를 충격에 빠뜨린다. 나는 만도를 현실과 맞서게 해주는 사고의 부속물이고 그림자였다."

욕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루의 독백은 악연 속에 또 다른 인연이 있음을 알리며 여운을 남긴다.

악연 | 필립 그랭베르 지음 | 홍은주 옮김 | 다른세상 펴냄 | 1만원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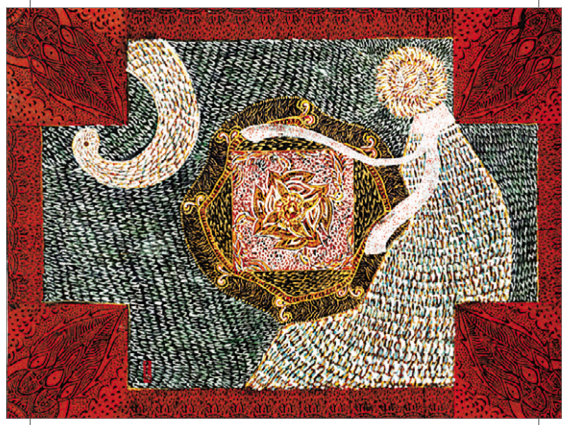


필립 그랭베르. 사진제공=Denis Rouvre

■ 문화 소식통

전각·서예로 만난 만다라

김영옥 작가 '숭례의 문' 展



김영옥 작가의 숭례의문22. 짧은 붓터치들이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각(篆刻)과 서예를 통해 만다라를 그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김영옥 작가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김영옥 작가는 6월 24일~30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벽원 갤러리에서 '숭례의 문' 전을 연다.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들은 돌에 새긴 크고 작은 전각을 종이에 도장으로 찍는 인장 기법 후, 붓으로 전통지 등에 순금 순은을 새로운 조형을 그린 회화 기법이 사용됐다.

김영옥 작가의 숭례의문1.

조형 기법을 살펴보면, 먼저 돌에 추상적인 단위 무늬를 새긴 다음 같은 도장으로 각도를 달리해 다시 좀 더 큰 단위무늬를 만들거나 병렬로 무늬 띠를 만든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조형으로 만들어낸다. 이어 질긴 종이를 선택, 엷은 먹물로 염색한 후 도장은 인주를 찍어 종이에 단계적으로 조형을 이루며 찍어나간다. 그 다음 붓으로 은색이나 금색으로 도장 무늬 위에 새로운 조형을 이뤄나간다. 기존 무늬의 연장선상에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선들을 그으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형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번 작품들에 대해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대표는 "이번 전시는 전각이 부분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붓의 터치가 지배적이다"며 "붓의 단선적인 터치에서 서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짧은 터치들이 폭발적으로 확산하여 펴져서 생명력으로 충만하다"고 평했다. (02)732-3777

노덕현 기자